

대학 교육에서의 초상화찬(肖像畫贊) 활용 방안 연구

- 초상 자찬(自贊)을 중심으로

김기완*

<차례>

1. 들어가며
2. 초상화찬의 강의자료적 가치
 - 1) 한문운문 작품의 교육적 활용 증대
 - 2) 동아시아 한문학 비교와 강의현장의 문화적 다양성
 - 3) 동양 자전문학 텍스트·관련 이미지와 학습자의 자기표현 글쓰기
3. 초상화찬 활용 토론식 수업모형 사례
 - 1) 기본 토론식 수업모형의 일례
 - 2) 토론 후 지도방향의 주안점(1): 전공 지식과 연구의 감각 배양
 - 3) 토론 후 지도방향의 주안점(2): 현대적 이해와 글쓰기 방법의 활용
4. 나가며

<국문초록>

초상화찬 텍스트에 대하여 한국한문학·미술사 등 다양한 한국학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진되고, 텍스트-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의 연구대상에 대한 관심이 공유·발전되어 나가는 현 추세에서 본고는 초상화찬을 대학 강의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초상화찬의 강의자료적 가치로서는 한문운문 작품의 교육적 활용도 증대, 동아시아 한문학에서 공유되는 장르의 재조명을 통한 강의현장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동양 자전문학 텍스트·관련 이미지와 학습자의 자기표현 글쓰기를 연동시킬 가능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공 강의와 교양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모형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초상화찬이 전공 지식과 연구의 감각 배양에 적절한 자료일 뿐 아니라, 고전의 현대적 이해와 자기표현 글쓰기 방법에서의 영감 얻기에도 활용 가

* 연세대학교 강사

능한 텍스트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초상화, 초상화찬, 자찬, 자기표현 글쓰기, 문학과 회화

1. 들어가며

다양한 전공 및 분과를 넘나드는 학제간 연구는 오늘날 학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동시에, 복합매체적 글쓰기와 대중 독자와의 소통이 중시되는 현 시대의 요청이다. 향후의 대학 강의는 이러한 학술적·사회문화적 동향과 흐름을 같이 하는 다양한 강의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 혹은 한문학 연구자를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렇듯 새로운 관점이 가미된 연구대상을 탐색, 소개하는 일은 강의현장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 시대에 걸맞는 대학 교육 자료로서 문학과 회화의 경계면에 있는 초상화찬(肖像畫贊: 전통시대 동아시아 초상화에 부쳐 쓰는 비교적 단형短形의 한문 글쓰기)¹⁾이라는 대상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본고는 필자의 논저를 포함 선행연구들에서 진행되어 온 초상화찬 연구를 기반으로 삼는다. 그와 동시에 본고는 대학 재학중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다매체적 강의 자료 모색과 관련되는 강의 현장에서의 체험적 내용

1) 전통시대 초상화에 부쳐 쓴 찬들의 실제 제목은 “~影贊”, “~眞贊”, “~畫像贊”, “眞影贊”, “~像贊” 등 다양하기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런 부류의 글을 ‘화상찬’이라 지칭하는 등 여러 용어가 병존할 수 있다. 필자는 편의상 이런 부류의 글쓰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으로서 ‘초상화찬’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畫像’이라는 용어보다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용례상 익숙한 용어인 ‘초상화’에 장르로서의 ‘贊’을 결합시켜 만든 용어이다.

을 아우른다. 초상화찬 관련 내용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강의지는 찬(贊) 장르 전반의 특징, 화상찬 문학의 일반형에 가까운 타인 대상 초상화찬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강의시 이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고의 3.장에서 서술할 구체적 수업 사례에서는 강의내용의 초점화와 서술의 편의상 초상 자찬(自贊) 자료를 주로 활용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고의 내용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고전문학 교육 방면의 연구를 살펴보자면, 전통시대 문학과 회화 간 상호연계적 연구를 진행해온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대학 강단의 문학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지를 탐색한 논의들이 있었다.²⁾ 한편 ‘그림 보고 글쓰기’의 동양 문예적 전통을 강의현장에서의 글쓰기 지도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탐색한 사례도 있었다.³⁾ ‘문학과 회화’ 및 ‘교육’의 경계면에서는 포괄적 개론에서부터 구체적 각론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의 스펙트럼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문학과 회화’ 방면에서 보다 다양한 대상들을 강의자료로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교육 방면의 논의는 고전문학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동향과도 기본적·잠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만큼, 문학과 회화를 연합하는 논의가 한국 고전문학계에서 어떻게 본격화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잠시 약술해 보기로 한다. 시서화 일치의 전통은 물론 동아시아 문예 전통에 오랜 토대를

2) 대표적인 논의로는 고연희, 「시화(詩畫)종합의 전통과 문학교육: 회화이미지 ‘형(形)’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고연희, 「회화를 통한 고전문학 학습, 그 효과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 김현주, 「고전문학 교육에서 예술 교육의 의의와 방향 모색」,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등 참조.

3) 황혜진, 「그림 보고 글쓰기」의 전통과 교육적 창신: <마상정영도>의 그림과 제화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두고 있으며 전통시대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합의사항이자 기본 전제가 되어 왔다. 한편 1980년대 즈음 서구 비교문학 방법론에서의 회화-문학 간 ‘상호조명’ 연구를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 접목시키고 제화시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삼으려는 시도와 시각이 본격화되기도 하였다.⁴⁾

한편 기존 한국 고전문학 분야에서의 문학-회화 간 비교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산수화·문인화의 영역을 벗어나, 초상화 및 인물화의 범주에 까지 이 방면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시키는 실례가 늘어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 초상화찬 연구를 통해 심미적 감상화라기보다는 제의적 용도의 그림, 내지는 실용화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 여타 화목의 경우 어떠한 제화문학(題畫文學)이 생성되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는 문학-회화 간 상호조명 연구의 폭을 넓히는 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는 초상화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초상화찬 연구사의 현 단계를 개술해 본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옛 전통에서는 문인들이 초상화를 제작하고 그 초상화에 대한 글을 한문으로 짓는 문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문 문학 장르로서의 초상화찬(贊)은 크게 분류해 보면 타인의 초상화에 부쳐 쓰는 찬(贊)과 초상의 주인공이 자기 초상에 대해 짓는 글인 ‘자찬(自贊)’으로 대별된다. 이런 부류의 글은 초상화의 배경 여백에 실제로 써 넣어 화면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현전해 오는 초상에는 직접 적히지 않고 특정 작가의 문집에만 실려 전하는 찬들도 적지 않다. 이로 볼 때 초상화찬은 초상 제작 내지 초상을 본 일이 계기가 되어 지어지는 글이기는 하지만, 모든 작품이 화폭에 실제로 적어 넣기 위한 목적으로만 창작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4) 비교문학 분야에서 문학과 여타 예술 간 상호관계 연구를 지칭하는 ‘예술의(예술간) 상호조명’ 개념에 관해서는, 율리히 바이스슈타인, 이혜순 역, 「예술의 상호조명」, 이혜순 편, 『비교문학 II: 논문선』, 중앙출판, 1980, 233~252쪽; 이혜순, 「예술상호간의 관계연구」, 『비교문학 I: 이론과 방법』, 중앙출판, 1981, 141~159쪽 등 참조.

초상화찬은 일차적으로 초상화에 부쳐 쓴 글이란 점 때문에, 오랜 기간 회화사 방면의 보조 자료로만 인식되고 문학 연구의 본격적인 대상으로서 간주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 초상화찬 텍스트가 갖는 문학적·문화사적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술사학자 강관식 교수가 미술사·문학 방면을 통틀어 초상 자찬 연구의 본격적인 선편을 잡은 이래로⁵⁾, 초상화찬에 대한 문학 방면의 연구 또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임준철 교수는 동아시아 자전문학 전통 속에서 화상자찬류 문학의 자아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고 전형과 변주의 길항 양상을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⁶⁾ 이러한 논의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초상 자찬의 계보에 대한 기반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한편 고연희 교수의 단행본⁷⁾에서는 주요 화상찬 작품들의 면면을 두루 살펴보면서 초상화 문화에 대한 학술서이자 대중교양서로서의 역할을 겸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 각종 연구들에서 초상화찬 장르의 양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초상화찬의 특징적 국면(친한 지인 간에 쓰여지는 사적 성격을 띤 초상화찬의 발달과 초상 자찬 창작의 활성화)을 밝히는 작업⁸⁾, 초상화찬의 문학적 수

5) 강관식, 「조선시대 초상화의 圖像과 心像: 조선 중후기 선비 초상화의 修己의 의미를 통해서 본 再現的 圖像의 實存的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사학』 1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1.

미술사 방면에서 초상화찬을 활용한 여타 주요 연구로는, 진준현, 「선비의 초상화(Ⅰ)」, 『자연과 문명의 조화(구 대한토목학회지)』 55, 대한토목학회, 2007, 79~83쪽; 진준현, 「선비의 초상화(Ⅱ)」, 『자연과 문명의 조화(구 대한토목학회지)』 55, 대한토목학회, 2007, 103~107쪽; 진준현, 「19-20세기 사대부 초상화」, 『다시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32~136쪽; 신대현, 『진영과 찬문: 참 아닌 참의 세계』, 혜안, 2006 등 참조.

6) 임준철, 「畫像自贊類 문학의 존재양상과 자아형상화 방식의 특징」,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임준철, 「한국 화상자찬의 전형과 변주」, 『전형과 변주』, 글항아리, 2013.

이 밖에 자전문학 전반을 연구한 한국의 한문학자가 화상찬 텍스트를 논한 연구의 예로는, 심경호, 「조선의 화상과 찬에 관한 窺見」,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등 참조.

7) 고연희,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사와 표현 장치에 주목한 연구⁹⁾, 20세기 초 초상사진에 부쳐 쓰여진 찬에 주목함으로써 초상 자찬 장르의 근대적 전변 양상을 탐색하는 논의¹⁰⁾, 초상화찬의 장르적 특징과 수사를 염두에 두면서 19세기 한중교유의 주역이었던 추사 일파 초상 제찬(題贊) 운문의 특수성을 가늠하는 논의¹¹⁾ 등이 이루어졌다. 초상화 이미지와 초상화찬을 포함하는 복합 매체적인 자료의 존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한문학의 저변에 자리한 전통시대 문예사 연구를 입체화시키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존의 초상화찬 관련 연구들에서 대상으로 삼는 ‘초상화찬’은 타인 대상 찬과 자찬, 그리고 중국의 역사인물이나 역대 명인의 초상에 부친 찬, 20세기 초의 사진에 부쳐 쓰여진 (초상화찬 형식의) 찬을 모두 아우른다. 이렇듯 연구대상의 면면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것은, 초상화찬 장르의 제 양상과 연구가능성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이 여전히 필요하며, 초상화찬과 문학적·문화사적 연구 판도의 접합 지점을 찾는 시도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초상화찬 장르 그 자체가 개별 연구 의제로서의 독립된 영역을 지니면서, 여타 문학적·문화사적 논제들과 접맥되기 용이한 대상임을 기존의

8) 김기완,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찬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김기완, 「초상화찬, 옛 문인들의 문학적 초상」,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321~335쪽.

9) 김기완, 「초상화찬의 자기 타자화와 관용구 활용」,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10) 김기완, 「20세기 초 망명 문인의 시각적 자기 표상: 초상화, 초상사진, 초상 자찬」, 『한국한문학연구』 69, 한국한문학회, 2018. ; 김기완, 「國難期 遺民의 초상: 19세기 후반·20세기초 亡國·망명 체험과 초상찬의 轉變」, 『한국고전연구』 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11) 김기완, 「추사 일파의 초상 題贊 운문 연구」, 『열상고전연구』 72, 열상고전연구회, 2020. ; 김기완, 「추사 일파의 초상 제찬(題贊) 운문 연구 (2): 외모기술과 초상화관(肖像畫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추사 김정희와 중국 문사들의 초상 증여 및 이와 관련된 제 문제를 다룬 국외 학자의 논의로는, 毛文芳, 「禮物: 金正喜與燕京文友의 畫像交誼及相涉問題」, 『한문학논집』 42, 근역한문학회, 2015 참조.

관련 연구사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소식(蘇軾), 왕양명(王陽明) 등과 같은 유명 문인·학자의 초상화가, 한중일에 걸쳐 특정 집단에 의해 일종의 시각적 코드로서 애호·향유되는 현상과 그것이 갖는 문화적 맥락을 연구하는 작업은 이미 이루어진 예가 있다.¹²⁾ 이와 관련하여 초상화찬 방향의 선행연구 중에서는, 송시열의 초상화에 송(宋) 주희(朱熹: 일명 朱子, 1130~1200) 초상 이미지의 권위를 빌어오고 덧씌우는 17~19세기 노론 집단 내부의 문화 담론과 문학적 전략을 밝히는 연구가 있었다.¹³⁾ 또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의 논의 가운데, 조선 유명 문사의 초상 전승과 도상의 변천, 이에 대한 후대인들의 반응과 의미부여 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¹⁴⁾

이처럼 한문학 방향의 새로운 연구 의제로서 초상화찬을 조명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초상화찬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아직 많다 하기 어렵다. 초상화찬 장르의 특성이나 작품세계의 전도, 문화사적 의의가 속속들이 밝혀지자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동참과 다방면에 걸쳐진 학계의 주목, 다양한 세부 주제의 계발을 통한 연구의 폭

12) 한중 전통 회화를 대상으로 청 翁方綱의 문예취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東坡笠屐像 및 중국 화단의 동향과 관련되는 여러 인물 도상의 유행을 탐색한 논의로는, 김울림, 「18·19세기 동아시아의 소동파상 연구: 청조 고증학과 관련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울림, 「옹방강의 금석고증학과 소동파상」, 『미술사논단』 18, 한국미술연구소, 2004 ; 김현권, 「추사 김정희 일파의 諸賢畫像 수용과 제작」, 『강좌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등 참조.

한편 사상사 연구 내지 문화상 연구의 일례로 식민지 시기 왕양명 초상의 유통을 재조명하고 일본의 상황과 비교한 연구로는, 최재목, 「근대 한국·일본의 『陽明先生肖像』에 나타난 사상 전략 최남선의 『少年』誌와 東敬治의 『陽明學』誌를 중심으로」, 『양명학』 21, 한국양명학회, 2008 참조.

13) 김기완, 「노론의 학통적 맥락에서 본 송시열 초상화찬(贊)」,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14) 양승민, 「매월당 김시습 초상화의 개모(改模) 과정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과 깊이와 심화 등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상화찬 텍스트에 대하여 한국한문학·미술사 등 다양한 한국학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진되고, 텍스트-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의 연구대상에 대한 관심사가 공유·발전되어 나가는 현 추세에서 본고는 초상화찬을 대학 강의 현장에 활용¹⁵⁾하는 방안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서양미술사의 자화상과 ‘자화상’을 제재로 한 한국 현대시를 대학 학습자의 자아 성찰 글쓰기 교육에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¹⁶⁾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고와 같은 논의는 전통시대 초상 이미지와 문학적 자화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한문학 작품을 대학 강의에 접목시키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초상화찬의 강의자료적 가치

본 장에서는 초상화찬이 대학 교육 자료로서 갖는 의의와 효용, 가능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에서 서술할 내용은 초상화찬 연구 자체의 학술적 의의나 향후 전망과도 일부 내용이 상통되며 이를 기반으로 논의하지만, 그 가운데 초상화찬이 대학 강의 현장과 만날 때에도 새로운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재점화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다시 짚어보는 방식으로 기술할 것이다. 본 장의 1)과 2)에서 서술할 내용은 그 자체로 교육목표라

15) 초상화찬 자료를 대학 글쓰기 교육 방면에서 활용한 글쓰기 교재의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후 본문 중의 각주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16) 이승희, 「그림과 시를 활용한 자화상쓰기: 전남대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제96차 정기 학술대회(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문학) 발표자료집, 2021년 6월 5일(학회 개최 일자), 158~173쪽 참조. 이승희의 위 발표문을 통해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의 자아 성찰 글쓰기에서 시와 그림을 매개로 활용하는 방안 및 이와 관련된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방면의 현 선행연구 정리 내용을 참조하였다.

할 수는 없고 초상화찬을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작업이 가져올 수 있는 배면적·일반론적 의의에 가까우며, 3)의 내용은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연결 가능한 내용이니만큼 후술하려는 본고 3.장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1) 한문운문 작품의 교육적 활용 증대

초상화에 부친 찬은 문체로 보았을 때 찬(贊) 내지 송찬류(頌贊類)에 속하며, 초상화찬 연구는 한국한문학-운문¹⁷⁾ 방면의 연구라 할 수 있다. 한시와 인접한 운문 장르인 찬 연구를 통해, 한시 및 한문학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¹⁸⁾ 송찬류는 포폄을 포함한 감계적·교술적 효과와 같은 실용적인 성격을 일부 지니면서, 장대하고 수식적인 언사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¹⁹⁾ 이러한 실용성과 수식성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요구하는 ‘문학성’이나 ‘독창성’과는 거리가 있기에, 송찬류의 연구가 한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전통시대 한문학에는 시와 산

17) 贊의 형식은 4언 운문이 정격이고, 산문이나 長短句로 짓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韻은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상화찬의 성격과 관련되는 贊의 문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김기완(2009), 앞의 논문, 9~17쪽 참조. 한문 운문 문체로서의 贊에 대한 문체적 접근으로는, 김종철, 『한문 운문문체의 이해와 분석』, 청문각, 2003 참조. 물론 贊은 운문 양식뿐 아니라 산문이나 長短句로 지을 수도 있는 만큼, 초상화찬을 ‘운문’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박진성의 최근 연구에서는 한문학의 자기 일생 서술 양식을 크게 산문형, 운문형, 산문·운문 중간형으로 대별하는 가운데, 운문형으로는 시(한시) 형식의 작품들을 들고, 자찬, 자잠, 자송, 자명 등은 산문·운문 중간형으로 분류하였다(박진성, 「자전문학 용어의 정립을 위한 시고」,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76쪽). 다만 본고는 한국한문학에서의 자전문학에 대한 학술적·전문적 논의를 목표로 삼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산문보다는 短形에 속하면서 韻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초상화찬을 일단 운문으로 칭하기로 한다.

18) 초상화찬은 그 내용이나 주제, 문학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한시와의 연계적 연구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활용도가 높다. 이를테면 초상화찬 내지 거울을 보면서 지은 찬의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담은 한시 내지 초상 自題詩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19) 송찬류 양식의 특성에 관해서는 김기완(2009), 앞의 논문, 9~17쪽 참조.

문 식의 이분법에 포획되지 않는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지닌 문체들이 있었고, 이에 주목하는 일은 한문학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초상화찬 연구가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서화에 부친 찬 전반의 유형화와 찬 장르의 특징, 미학에 대한 연구까지 폭을 넓혀나가고자 할 때, 초상화찬 연구는 하나의 기반적 작업이 될 수 있다. 기존 한국한문학 방법의 문학과 회화 상호관련 연구 역시 장르 면에서 볼 때 제화시나 제화산문의 영역을 다룬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의 제화문학 연구는 찬 장르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찬과 송찬류, 잠명류(箴銘類)와 같은 다양한 한문 문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기반, 깊은 분석과 연구 전망 등이 부족한 상황²⁰⁾에서, 이런 부류의 한문 자료들이 교육적 활용가능 자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일견 당연한 현상이다. 한시 이외의 여러 다양한 한문학 문체들, 특히 송찬잠명 같은 한문 운문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지식을 강의하는 일은, 기실 고전문학이나 한문학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전공수업에서도 어렵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다만 송찬류, 잠명류 등의 한문 운문이 옛 문인들의 생활과 자기성찰에 밀착되어 있었던 양상을 강의 내용에 잘 활용한다면, 현대 대학 학습자가 한문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을 줄이고 고전의 재창조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일상 가까운 곳의 기물에 공부와 생활의 다짐을 새기는 선비들의 잠명체 글쓰기의 감각은 사실상 오늘날의 좌우명과 다르지 않은 만큼, 자기계발에 관심이 큰 대학생들이 학습 환경에 쓰고 붙이는 재치 있는 잠언체의 자기대화로 재탄생

20) 물론 여기서 송찬잠명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진단은 한시, 한문산문 연구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관점에서 개괄한 것이고 이 분야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연구와 논제가 없지 않다. 한국한문학에서의 명(銘) 작품에 대한 분석과 연구로는 김동준, 『이불과 폐개에 새긴 잠언-침명(枕銘)과 금명(衾銘)』, 『문헌과 해석』 35, 태학사, 2006을 들 수 있으며, 관련된 작품 선집과 번역서로는 허승현 옮김·미호 그림, 『잠, 마음에 놓는 침: 고전작품선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이 있다.

될 수 있다. 초상과 그에 부친 문인 자신의 자찬이 자기성찰의 수기적·시각적 매체로 활용되었던 초상 자찬의 전통²¹⁾은 오늘날 학생들의 자기표현 글쓰기에 충분히 영감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2) 동아시아 한문학 비교와 강의현장의 문화적 다양성

전술하였듯 애당초 찬과 초상화찬 문화 자체가 한·중·일 등의 동아시아 한문학 전통에서 공유되는 것이었던 만큼, 초상화찬은 한문학과 시각예술의 동아시아적 비교연구에 적합한 사례로서 향후 더욱 주목될 가치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초상화의 도상 및 양식이 더욱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²²⁾ 그러한 회화적 측면이 각국 초상화찬의 내용적 특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초상화찬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더욱 심화된 이후에는, 이를 거점 삼아 향후 보다 거시적인 맥락 위에서 한국 초상화찬의 성격을 비교문화적으로 기능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 도연명, 주희 등과 같은 중국 역대 명인·문인·학자들의 초상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로 다른 수용사를 만들어간 양상도 향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초상화찬은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20세기초 동아시아 한문학의 전 변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20세기 초의 지식인들이 다수 남긴 사진에 부친 찬은 초상화찬이라는 전통적 문화형식이 근대 이후에 신매체와 만나 변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진이라는 신기술이 발명된 근대 이후 역사와 문화의 변화상이 초상 제찬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비단 한국

21) 강관식, 앞의 논문 참조.

22)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열화당, 1983, 457~467쪽; 조선미, 「명·청대 초상화와 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초상화의 성격」·「중국 초상화의 유입 및 한국적 변용」, 『초상화 연구』, 문예출판사, 2007 참조.

한문학의 범주에 국한되면 것이 아니며, 요컨대 20세기초 한·중·일 지식인들이 초상화찬 및 사진에 부친 찬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한문학의 오랜 전통을 빌어 사회문화적 격변기에 대응해간 양상을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 역시 전통시대부터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초상화 수용 및 향유의 문화가 있었던 만큼, 초상화찬은 외국인 학습자의 비중이 높은 현 대학 강의실 상황에서 유의미한 재음미와 토론의 대상자료가 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특히 <한문(1)> 교과목 강의시 한문문화가 한중일 및 베트남 공유의 것이고 옛날부터 해외 문인들과의 교류시 필담만으로도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내 타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한문 학습에도 중요함을 평소 강의시 강조함으로써, 학습 차원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²³⁾ 특히 대학 한자/한문 교과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상용되는 한자, 한국 전통시대의 한자문화 등을 기본 강의내용으로 삼게 되지만, 학습자들에게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공동 문어(文語)로서의 한문을 공유하는 동문(同文)의 관계에 있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국 등의 고전 및 한문문헌에 대한 언급도 수업중에 수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강의 현장의 상황에서 초상화찬 문화 역시 한국을 벗어난 한문문화 전통의 초국적 공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한 자료가 될 법하다.

3) 동양 자전문학 텍스트 · 관련 이미지와 학습자의 자기표현 글쓰기

동양 전통시대의 자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현 시점에서, 초상

23) 본 교과목의 강의평가 객관식 문항 중에도 ‘다양성에 대한 열린 가치관과 태도’ / “비차별 원칙”과 같은 항목이 있어, 강의자의 입장에서 다문화 시대와 사회에 적합한 강의내용 및 강의시의 유의점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화찬, 특히 초상 자찬 연구는 누락될 수 없는 비중과 의의를 지닌다. 초상화에 덧붙인 자의식의 표현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동양 자전문학 전통에서 형상성 내지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추적할 수 있다. 초상화에 부처 쓰여진 글이라는 태생적 요건상 외형과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기 쉬운 초상화찬은, 전통시대 문인들의 문화와 멘탈리티(mentality)를 더욱 생생하게 재구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초상화찬과 초상 자찬은 인간의 외형보다 정신적인 면과 내적 수양을 중시했던 조선 사대부들이 어떠한 인식들을 가지고 인간을 표현하는 글쓰기 양식을 정립해 갔는지를 학술적으로 답해줄 수 있는 자료이다. 요컨대 추상적·정신적 문제가 사상과 담론의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시대에도 외모나 복식 같은 구체적 시각 이미지와 연관된 자의식의 표현은 여전히 존재해 왔음을 초상 자찬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초상 자찬은 서구에 비해 자화상이 발달하지 않았던 동양의 문예전통 속에서 일종의 ‘문학적 자화상’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²⁴⁾

초상화찬은 초상에 그려진 인물의 외모 이미지를 글쓰기의 출발점이자 중심 소재로서 활용하는 글이다. 이처럼 초상화찬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된 외모나 표정, 복식 등은 초상 주인공의 내면 독해를 가능케 하는 외형적 텍스트이자, 내적 지향에 관한 서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시각적 단초로서 기능한다.²⁵⁾ 초상 이미지로부터 자신에 대한 단상을 이끌어내는 글쓰기의 법식은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사진 찍기와 사진에 덧붙인 댓글 형태의 온라인상 글쓰기에 익숙한 현대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와 응용이 가능한 범주 내에 있다. 전통시대의 초상화는 기능상 현대로 치면 사진의 대체재와도 같았던 만큼 초상화의 역할을 근대 이후에는 사진이 이어받으면서 초상화찬 형식의 찬문이 고스란히 사진에 부쳐졌던 것처럼, 초상화

24) 본 문단과 다음 문단 초반은 김기완(2013), 앞의 글, 321~322쪽을 기반으로 본고의 맥락에 맞게 재서술한 것임.

25) 김기완(2013), 앞의 글, 322~323쪽 참조.

찬은 본디 장르의 역사와 변천과정 내에서부터 사진과의 친연성이 매우 높은 글쓰기 양식이었다.²⁶⁾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기 바쁘고 자신의 시선과 발걸음이 머무른 곳을 포함 각종 좋아하는 대상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고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는 데 익숙한 현대의 학생들에게 있어, ‘나’의 사진, 혹은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을 동원하여 ‘나’를 표현하는 형식은 친숙하면서도 매력적인 자기표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3. 초상화찬 활용 토론식 수업모형 사례

초상화찬은 각종 교육 현장 및 대학 강의시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한문학과 한문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기에 적합한 강의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초상화찬에 대한 강의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비평 방면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전의 재탄생과 이미지-텍스트 간 연계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

필자는 실제로 초상화찬 관련 내용을 강의 현장에서 활용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2019년도 필자의 <글쓰기> 교과목 강의시 첫 주 강의자료로 초상화찬을 소개, 활용함으로써,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동양의 자전적 글쓰기 전통에서 학생들이 자기소개 글쓰기의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한 경험이 있다. 또한 한문 기초 교과목 강의시에는 전통시대 한문문화의 실재라는 차원에서 초상화찬과 초상화를 일부 강의에 활용하였다. 국어 국문학과 고전문학 전공수업인 <고전문학과 인접예술> 강의시에는 제화문학의 한 갈래로서 초상화찬을 강독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강의내용에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 강의자의 입장에서 강의 교과목의 성격에 맞는 활용 방안의 탐색이 필요한 만큼, 본고의 이하 내용에서는 그 구체적인

26) 김기완(2018), 앞의 논문 ; 김기완(2020), 앞의 논문 참조.

실제를 일부 보이교자 한다.

1) 기본 토론식 수업모형의 일례

한국고전문학을 전공한 강의자로서 대학 강의 현장에서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한문〉, 〈글쓰기〉, 문학 분야의 여타 선택교양 교과목 등 다양한 성격의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지식 전달형 강의와 소통 지향형 강의의 균형 및 융합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특히 고전문학 전공 수업이 아닌 일반 교양 강의에서 한문학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시키고 자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은 강의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난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강의자료 면에서는 고전문학과 연관되는 회화 자료들을 활용²⁷⁾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강의 모형 구성과 실제적인 교수법 모색 역시 이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컨대 고전문학·글쓰기 등의 강의에서도 강사의 일방향적 강의에서 벗어나 독서와 토론, 말하기와 글쓰기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는 교수법의 계발 및 시도가 요구된다.

필자의 경우 글쓰기 지도 및 토론 강의시 강의자의 일방향적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조별토론 및 발표 형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문을 학생들이 먼저 스스로 읽도록 한 후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해서 학생들의 관심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강의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에게 먼저 자율적 토론 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성과 상상력,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별발표 이후 강의자가 개입하여 기존연구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이 토론과 글쓰기 훈련을 거쳐

27) 실제 초상화찬 강의시에는 찬 작품과 연관되는 초상화 자료들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학습자의 흥미 제고를 위한 도입 자료로 선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작품 텍스트를 위주로 한 강의 모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보다 학술적인 논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고 성취감과 고양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강의자는 고전 작품의 양식, 글쓰기 방식과 현대의 글쓰기가 다른 점을 생각해 보고, 고전문학 작품의 특성과 그에서 기인한 영감을 현대의 글쓰기 혹은 웹상/SNS상의 글쓰기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강의자는 이미지/영상과 텍스트, 혹은 장르·내용·주제·표현방식 면에서 비교할 만한 2~3개의 텍스트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여러 텍스트 간의 창조적 대화와 엮어읽기를 가능케 하는 통찰력, 분석적 사고력의 확장을 유도한다.

이러한 의도 위에서 초상화찬 및 연관된 고전문학 작품의 제시를 통해 실현 가능한 토론형 수업 모델 가운데 하나를 이하에 예시해 본다. 타인의 초상화에 부친 타인 대상 찬을 1편 정도 더 선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를 향해 화제를 확장시키는 방향도 물론 가능하지만, 아래 예시에서는 편의상 초상 자찬과 산문 자전을 병렬시켜 자전문학 및 자기표현 글쓰기를 주로 강의, 토론하는 방향으로 논점을 좁혀 보았다.

**학생의 자율적 학습활동(조별토론) 모형:
여러 자전문학 작품 비교·조별토론 후 강사 강평**

- 학습활동 자료

① 자전(自傳) 작품의 사례: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추재집(秋齋集)』 권8 「문(文)」, 〈경원선생자전(經畹先生自傳)〉

(편의상 번역문만 제시 / 이하의 번역문 및 작품 분석(‘狂士’의 의미 등)은 심경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61~69쪽을 참조하였음.)

(이하는 심경호, 위의 책, 62~63쪽의 번역을 그대로 옮김) 경원 선생은 조선의 미친 선비다[經畹先生, 朝鮮狂士也].

천성이 글 읽기를 좋아하여 흰머리가 되도록 웅알웅알 그치지 않았으나, 끝내 또한 스스로 잊어버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멍하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때로는 억지로 기억해서, 도도하게 일만 글자 분량을 외워, 육경을 전부 외울 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짓기를 좋아하여 심지어 먹고 자는 것도 그만두었으나 그리 훌륭한 글을 짓지는 못했다. 하지만 왕왕 기세가 높고 뛰어나 옛 작자의 풍모가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변변찮은 음식조차도 실컷 먹지 못했는데, 열흘이나 한 달씩 산수간으로 나가 노닐며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 본디 술을 마시지 못했으나, 일찍이 사신을 따라 요동벌을 지나 명발(溟渤: 큰 바다)에 이르고 연대(燕臺: 북경)로 들어가 개를 도살하는 저자거리에서 노닐었던 때에는, 커다란 술잔을 쳐들어 하룻저녁에 서너 말을 죄다 들이켰다. 기력이 가냘프고 연약해져 옷을 이기지 못했으나, 고급의 성공과 실패, 의리와 이익의 분별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문득 머리카락이 치솟고 눈을 크게 떠서 기세가 오른 것이 용사와 같았다. 남과 사귀기를 좋아해서, 귀한 이, 천한 이, 현명한 이, 어리석은 이를 따지지 않고 모두 그 환심을 얻었으나 끝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해학을 잘하고 비속한 일을 많이 말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경(常經: 올바른 법도)을 등지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공자의 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끼어들어 비난할 수 없었다.

늙어 병이 많고 또 게을러지자, 문을 닫고 찾아오는 손님을 물리치고 종일토록 머리가 지끈거리려 자는 듯 누워있었다. 손님이 오면 모두 사절하고 만나보지 않았으나 유독 몇몇 사람과는 교류하였으니, 곧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탄식하며, “나에게 십년이라는 기간이 더 주어져 만일 문장에 진력한다면 역시 성대(聖代)를 위해 <격양가>[擊壤之歌]를 짓기에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소진(蘇秦)이 했던 말에 대해 일찍이 회한을 느껴, “대장부로서 몇 이랑의 밭을 도모함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나는 마땅히 구경(九經)을 좋은 밭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스스로의 아호를 ‘경원선생(經畹先生)’이라 했다.

찬(贊)은 이렇다.

외면이 유희화되 내면이 강건한 자는 미치지 않고도 미친 것이 아닌가?

일신은 폐기되어도 도에서 흥기한 자는 무능함을 디디고 능한 것이 아닌가?

미치지 않았음에도 남들은 알지 못하고, 능히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니,
천명인가 시운인가?

이것은 옛사람이 ‘갈아도 닳지 않고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고 한 태도를 흠
모하는 것이로다.

② 초상 자찬의 사례: 조관빈(趙觀彬, 1691~1757), 〈화상자찬(畫像自贊) 병서
(并序)〉

(편의상 여기에는 찬贊 부분만 옮김)

네 모습은 어찌 파리하며, 네 거동은 어찌 서투른가.

밝은 그 눈동자, 곳곳한 그 기골.

푸성귀 먹고 물 마시는 자연의 상(相)이요,

붉은 관복에 금띠 두른 재상의 모양이로다.

슬퍼하는 것 있는 듯한데, 슬픈 것은 무슨 뜻인가?

근심하는 것 있어 보이는데, 근심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어진 것인가, 아닌가? 충성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

백세(百世)의 안목 갖춘 자여, 칠분(七分)이 바로 이 그림이로다.²⁸⁾

위에 보인 학습활동 자료에서 초상 자찬 자료와 함께 조수삼의 자전을
제시한 것은, 학생들이 찬 장르 이외에도 산문으로 쓰여진 자전 장르를 함
께 읽으면서 동양 자전문학 장르의 여러 글쓰기 양식을 비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수삼의 자전은 본문과 찬(贊)의 결합 형식을
강의하기에 적절하면서, 일반적인 사대부 계층 외에 해외체험이 많은 중인

28) 조관빈, 『梅軒集』, 권15 「贊」, 〈畫像自贊 并序〉 “爾貌何瘦, 爾儀何拙, 瞭然其目,
骯然其骨, 飯蔬飲水, 山野之相, 服緋拖金, 宰相之樣, 若有所悲, 悲者甚意, 若有所憂,
憂者甚事, 賢耶未耶, 忠乎否乎, 百世具眼, 七分斯圖.”

층 문사의 자의식을 추가적으로 강의하기에도 좋은 예로서 선별되었다.²⁹⁾ 조관빈의 초상 자찬은 4언 운문 형식으로 쓰여진 찬(贊)의 정격적 서술방식을 보여주며, 서두부와 종결부의 내용도 초상화찬의 서식에 부합되므로 초상 자찬의 일반형에 가깝다.

이때 산문 형식의 자전과 운문 형식의 초상 자찬 사이에 장르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활동에서 이 두 부류의 작품을 함께 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번째로는 오늘날의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관점에서의 이유가 있다. 운문 형식의 초상 자찬은 학생들의 자기표현 방식에 영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학생의 글쓰기 결과물이 초상 자찬의 문구나 서식을 모방한 운문 형식으로 작성되도록 강의자가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친숙하게 여기며 연습하기를 원하는 자기표현 글쓰기란 아무래도 취업이나 대학 과제에서 요하는 산문 형태의 ‘자기소개서’이다. 이때 자기소개 글쓰기의 지도 방향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술성과 자기성찰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강의자료를 소개, 제시하는 데 강의자의 한 역할이 있다 할 것이며 초상 자찬이라는 상대적으로 낯선 양식은 그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대개 학생들의 자기표현 글쓰기 과제는 산문으로 지어지기 마련이므로, 학생들이 산문 형식의 옛 자전 작품을 동시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현대의 자기소개 글과 전통시대 자전 글쓰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대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습자의 자기표현 글쓰기에 접목시킬 만한 착안점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29)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조수삼의 위 자전(심경호 위 번역문 포함)을 활용하여 “‘나’와 이야기”, “‘나’의 경험과 기억”을 다룬 예로는, 유광수·임진영·김기란·주형예·강현조, 『비판적 읽기와 소통의 글쓰기』, 박이정, 2013, 149~151쪽 참조. 이 교재의 22~23쪽에서는 윤두서의 자화상에 부친 이하곤의 찬을 통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는 “전문적 읽기” 개념이 설명되기도 하였다.

두번째로는 고전문학 전공 교육 측면에서의 지식 전달의 균형성과 학습 내용의 안배를 고려한 이유가 있다. 전통시대 자전문학 강의를 현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에서 빗겨간 송찬류 작품으로만 채우거나 대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국어국문학 전공생의 입장에서는 산문으로 지어진 자전의 일반형을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다. 강의자는 “시로 쓰여진 자전”이라는 동아시아 자전문학의 전통³⁰⁾ 안에서 오랜 역사가 있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자사전 개념과는 다소 상이한 양식을 소개함으로써, 옛 자전문학의 제 양상과 다양한 형식을 함께 강의할 수 있다. 또한 산문 형식 자전과 초상 자찬이 장르는 다를지라도, 자아상의 유형, 자기 표현의 어조와 같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함께 다루어지거나 비교 분석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본고의 주제인 초상화찬이 단독으로 부상되기 어려운 부수적·보조적 강의자료에 머물지 않도록, 후술할 3.-3) 부분에서 초상 자찬 텍스트를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하에는 위에서 보인 조수삼 자전(自傳)과 조관빈의 초상 자찬을 기반으로 한 조별토론 모형과, 학생들의 토론 내용 발표 후 강사가 진행할 강평 방식을 보다 자세히 기술해 본다. 학생들의 자율토론에만 의지할 경우 학생들의 기본적 접근이나 토론 이후의 정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 토론 전에 강사가 몇 가지 주요 안건들을 선 제시하여 토론의 방향성을 사전에 시사할 수 있다.³¹⁾

30) 한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관점과 기준에 따라 산문 작품 외에도 자잠, 자명, 자경, 자찬, 자송 및 시 유형의 작품들이 자전문학의 범주에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은, 박진성, 앞의 논문, 98쪽 참조 중국 자전문학에서의 “시 속의 자전”에 대해서는, 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231~252쪽 참조.

31) 흔히 문학 해석에 있어 “정답은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특히 고전문학과 같은 경우 배경 지식과 당대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일종의 오해 내지 오답은 분명 있을 수 있기에, 학생의 자율 토론과 저마다의 감상에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고전문학 강의자의 적절한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주요 토론 안건 제시 (학생 토론 전에 강사가 제시)

- ① 작품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대목에 관해 질문하기
- ②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생각해 보기
- ③ 현대의 글쓰기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 ④ 이 작품들에서 현대 우리들(학부생 수강생)의 글쓰기(자기소개서, 각종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상의 글쓰기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 등 Social Network Service상의 자기표현 글쓰기)에 적용할 만하고, 글쓰기의 영감을 주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

①~④까지의 위의 네 가지 안건은, 각기 다른 학습목표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며, 학생 토론 이후 관련하여 이어질 강사의 강의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각 안건마다 배당된 학습 목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 위 안건의 토론 및 강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 (학생 토론 후 강사 강평에 포함될 내용)

- ① 한문학 작품의 강독을 위한 지식과 전고(典故)의 학습
- ② 다양한 한문학 작품의 장르적 특성(산문으로 쓰여진 자전과 운문 형식의 자찬 등) 비교 이해
- ③ 한문학 작품의 수사적 특징과 내용적 특성 분석
- ④ 사과의 확장과 글쓰기 차원에서의 응용 도모

위 ‘(1) 주요 토론 안건’ 가운데 ①~③은, 학생들의 토론을 거친 후 강사의 강평으로 이어져 고전문학 방면의 지식 습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질문이다. 이 중 (1)~③과 같은 질문은 고전문학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④에서 이어질 글쓰기 교육과의 연계 학습을 위한 예비적 점검도 된다. ‘(1) 주요 토론 안건’ 중 ④는 현대의

독자 내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고전문학을 재창조하는 방향³²⁾의 교육적 의도를 지닌다. 고전문학 전공 수업에서 초상화찬을 다루는 경우라면 ‘(1) 주요 토론 안건’ 가운데 ①~③까지의 토론 및 정리 강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글쓰기 교과목 등의 대학 교양 수업에서는 ①~③의 토론 과정을 거쳐 ④에 도달하는 데 목표를 두는 식으로 강의의 향방을 조절할 수 있다. 본 장의 다음 두 절에서는 이 토론 모형에서 전공 지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리고 현대적 해석과 재창조를 거쳐 글쓰기에 접목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두 가지 경우를 대별해서 기술해 보기로 한다.

2) 토론 후 지도방향의 주안점(1): 전공 지식과 연구의 감각 배양

앞 절에서 제시했던 선 토론-후 강의 모형에서의 ‘(1) 주요 토론 안건’ 가운데 ①~③ 부분의 학생 토론과 강사 강평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공 지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함양할 수 있는 연구와 분석의 시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술해 본다. 우선 “① 한문학 작품의 강독을 위한 지식과 전고(典故)의 학습”의 예로서, 조수삼 자전에서의 ‘광사(狂士)’의 의미 학습과 같은 부분을 들 수 있다. 강사는 학생들이 한자의 축자적 뜻만 보고 오해하기 쉬운 ‘광사(狂士)’의 의미를 토론을 거친 이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논어에 나오는 ‘광(狂: 狂者, 狂狷, 狂簡)’의 의미와 맥락 등을 함께 강의한다. 조수삼 자전 중 “〈격양가〉[擊壤之歌]”와 같은

32) 고전문학의 이해와 분석에 있어 과거의 당대적 시각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전예술 관련 강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도 이 두 입장 간의 조정과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상통하는 논의가 교육 방면에서의 김현주의 논의(김현주, 앞의 논문, 13쪽)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김현주는 고전문학과 예술교육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시간 방향성의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함을 제안하면서, “과거 회고적인 방향”과 “과거적 가치를 미래지향적 가치로 치환시키는 방향”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대별해 보인 바 있다.

용어 역시 학생들의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집중되는 대목으로, 강사는 학생의 질문을 받은 후 그 의미와 용례를 부연 강의할 수 있다. 앞에서 함께 보인 조관빈의 〈화상자찬〉 역시 찬 자체는 길지 않은 만큼 전공 수업에서 강독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운자의 배치를 고려하여 기술된 양상 등을 강의한다.

“② 다양한 한문학 작품의 장르적 특성(산문으로 쓰여진 자전과 운문 형식의 자찬 등) 비교 이해” 부분에서는, 조수삼 자전 사례를 통해 산문으로 기술된 본문과, 운문으로 앞 내용을 집약하는 찬(贊)이 결합된 형태의 구성이 한 작품 내에 나타나는 양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산문과 찬이 결합된 자전은 중국 진(晉)나라 도잠(陶潛)의 자전인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추가 예시로 설명하며, 비지체(碑誌體) 글쓰기 후반부에도 명(銘)의 내용이 앞의 기술내용을 이어받으면서 압축적으로 집약한다는 점 등을 강의한다. 구체적인 작품의 강독과 토론에서부터 출발하여 한문 문체의 특성과 양식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강의할 수 있다. 함께 제시한 조관빈, 〈화상자찬 병서(并序)〉 역시 서(序)와 찬(贊)이 결합된 양식으로 기술되었기에, 인물 대상 찬 내지 초상화찬 장르에서 서와 찬이 함께 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③ 한문학 작품의 수사적 특징과 내용적 특성 분석”에서 학생 토론을 거쳐 추출할 만한 강의를 논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산문과 운문(초상 자찬 양식) 모두에서 글 속의 자신을 2인칭, 3인칭, 이름이나 자호로 호명하는 등 자기타자화를 높은 빈도로 활용하는 동아시아 자전문학의 전통을 학생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발견해낼 수 있다. 강사는 이것 또한 진(晉) 도잠(陶潛)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등 이른 시기의 중국 자전문학의 전범에서부터 익히 확립되어 온 특징임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토론 시간상의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조관빈 〈화상자찬〉에서 내용상으로 분절되는 지점(외모기술부/외모 독해와 연계된 내면기술부/초상의 관람자

및 후대인을 의식한 발화로서의 종결부)을 나누어보고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초상화찬 글쓰기의 구조적 서식³³⁾을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장르의 자전문학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자아 인식의 양상과 내용, 그 표현방식에 대해서도 토론과 강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조수삼 자전에서는 작품 전체에 걸쳐 겸손과 자부가 교차하고, 지향과 현실 사이에서 어긋남과 굴절의 연속을 경험하는 삶을 기술하고 있다. 조수삼 자전에서는 특정한 틀로 유형화되기를 거부하고 다각적 자아 표상을 그리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작품 사례로 학생 조별토론 후 강사 강평시 논의 보충을 위해 추가 제시할 만한 작품으로는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의 초상 자찬인 〈사영자찬(寫影自贊)〉³⁴⁾과 같은 예가 있다. 또한 강사는 한정된 지면에서 ‘나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자아 정체성을 조형하는 가운데 무엇을, 어떤 내용을 취사 선택³⁵⁾하는지에 학생들이 주목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조수삼 자전에서는 증인층 문사로서 여러 차례 중국에 다녀온 조수삼의 인생 이력이 비중 있게 서술되는데, 초상 자찬 방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3~1865)의 초상 자찬³⁶⁾ 사례가 있어 함께 강의할 만하다.

“④ 사고의 확장과 글쓰기 차원에서의 응용 도모” 부분에서는 수강생에게 전통시대 한문학 작품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여기서 자기

33) 김기완(2009), 앞의 논문, 17~33쪽 참조.

34) 유한준, 『自著』, 續集 冊1, 〈寫影自贊 庚申〉.

35) 조수삼 자전이 삶의 경험의 선택과 이야기 구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면모, 또 이 과정에서 타인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모습이 ‘나의 이야기’ 구성에 중요한 요건이 됨을 주목한 글쓰기 교육 방면의 논의로는, 유광수 외 저(2013), 앞의 책, 150~151쪽 참조.

36) 이상적, 『恩誦堂集』, 續集 文 권2, 〈林下戴笠像自贊〉. 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해외체험의 열기와 해외를 무대로 한 자이상 조형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며, 한중교유의 友誼와 해외체험 속에서 재구성된 새로운 자의식을 보여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자찬 사례라는 점)은 김기완(2020), 앞의 논문, 277~278쪽 참조.

표현 글쓰기의 영감을 얻는 방향의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전공 강의보다는 글쓰기 교과목 등의 교양수업에서 더욱 확대, 강조될 이러한 교육적 활동³⁷⁾의 구체적인 면면에 대해서는 아래 절에서 이어 서술해 보기로 한다.

3) 토론 후 지도방향의 주안점(2): 현대적 이해와 글쓰기 방면의 활용

회화와 이미지, 음악, 영상, 영화, 공연예술, 만화와 웹툰 등의 다매체와 연계된 통합적 글쓰기 교육은 오늘날의 새로운 화두이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명멸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독해와 분석의 대상이 ‘문자’와 ‘책’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글쓰기의 장 또한 더 이상 인쇄매체나 지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컴퓨터, 핸드폰 등의 각종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상의 글쓰기환경은 텍스트와 영상, 시청각 자료 등 2가지 이상의 매체성의 결합을 한층 용이하게 하는 한편 독자들의 흥미를 잡아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다.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현상이 이러한 대학 바깥의 기류와 무관하게 중립적인 전공 상태로 남아 종래의 교육 방식을 시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초상화찬을 강의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초상화찬에 비견할 만한 현대의 문화적 면면 내지 온라인 매체에 무엇이 있을지 사고의 전환 내지 확장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필자가 글쓰기 교과목에서 초상화찬 관련 내용을 강의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강의안의 도입부이다.

37) 전공 강의에서는 초상화찬 강의시 전형적 글쓰기 방식의 특징과 구조, 서식, 관용구 등에 대한 학술적 설명에 중점을 두고, 글쓰기 교과목 등의 교양 수업에서는 초상과 찬문이 함께 전하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 내면에 대한 관찰과 발견, 자기표현 능력을 제고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공수업과 글쓰기 등 교양수업에서의 초상화찬 활용 방법 면에서의 차이를 위와 같이 정리해주신 심사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프롤로그: 시각 매체와 연계된 자기 표현의 전통

2019년. 현대는 이미지들이 범람하는 시대다. 각종 매체를 수놓은 시각 이미지와 영상들이, 문자 텍스트와 책을 압도한다. 한편 현대는 소위 ‘자기 PR’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미지, 영상물, 음향 파일과 텍스트가 혼합된 사이버 시대의 복합매체적 글쓰기는 현대인들에게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한껏 열어놓았다. 많은 개인들이 홈페이지·블로그·트위터 등의 각종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기 이미지와 취향을 조형하고, 이를 외부로 향해 실시간으로 발신하며, 타인의 피드백과 교감하면서 자기 존재를 재확인한다. 언제, 어디에 가서,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지 증거하는 ‘나의 디카 속 사진들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고 이른바 ‘뽑샵’ 과정을 거쳐 홈페이지에 올린 후, 사이버 공간에서 ‘1촌’을 맺은 친구들이 이 사진 밑에 주르륵 달아주는 ‘댓글’들을 확인하는 것은, 현대 10~20대 젊은이들의 한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모, 복식 등의 시각 이미지와 연관시켜 ‘나’를 표현하는 자기 표상의 방식은, 과연 ‘자기 PR’을 권장하고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의 전유물일까? 과도한 개성의 분출이 억제되고 서구에 비해 자화상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옛 문인들의 ‘문학적 자화상’은 어떤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까?

위와 같이 학생들의 일상에 스며든 미디어 체험과 연계시켜 초상 자찬이나 친밀한 지인 간에 쓰여진 조선 후기 초상화찬의 발달한 정감³⁸⁾ 등을 강의하면, 수강생들은 한층 더 강의내용에 흥미를 보였다. 또한 글쓰기 교과

38) 사적 경향성이 강한 조선 후기 知人 대상 초상화찬의 어조와 파격에 관해서는, 김기완(2013), 앞의 책, 329~331쪽 ; 김기완(2009), 앞의 논문, 51~60쪽 참조.

본고에서 자세히 서술하지는 못했지만, 친밀한 지인의 초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진 초상화찬 작품들을 선 강의한 후,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사진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친구나 가족 등에 관해 기술하는 글쓰기/토론 활동을 지도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다.

목의 수강생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의 강의를 들으면서, 초상화찬의 글쓰기 방식을 학기초(1~2주차)의 자기소개 글쓰기에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스스로 생각해볼 것을 주문한다.

필자의 초상화찬 연구 경험으로는 초상화찬 텍스트 내에서 학생들이 이 채롭게 느끼고 발견하며 특히 자기표현 글쓰기에 접목시킬 만한 착안점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서두부의 외모에 대한 기술로부터 출발하여 내면과 인간됨 전체에 대한 기술로 나아가는 서술 법식, 초상 속의 자기 이미지를 남 대하듯 하는 자기타자화와 각종 초상화찬 속의 관용구³⁹⁾들은 일견 관습 문학의 낡은 투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초상화찬 식의 글쓰기 양식이 이미지와 연계된 자기표현 글쓰기라는 현재적 재창조의 장으로 옮겨져 온다면, 글쓰기 학습자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바라보고 맞이하는 인식과 표현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한문학과 동아시아 자전문학의 전통에서는 오래된 자기표현의 틀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도리어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며 재발견될 수 있는 대상이다. 내용·주제의 층위 못지않게 글쓰기의 양식·서식이 달라지는 경우, 발상과 사고의 전환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특히 초상화찬의 화자가 그림 속의 자신을 2인칭이나 3인칭, 자호(字號) 등으로 호명하는 자기타자화의 수사는, 현대의 글쓰기 학습자들이 개인의 감정에만 함몰되지 않고 자기 인식과 성찰의 거리감을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미지와 도상을 활용하는 자기표현 글쓰기라는 점에서도 초상화찬, 특히 초상 자찬의 시사점은 적지 않다. 초상 자찬의 전통에서는 복식을 자의식의 시각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방식⁴⁰⁾이 있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39) 초상화찬의 서술 전통 내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자기타자화의 양상 및 효과와 여타 몇몇 관용구에 대한 내용은 김기완(2019), 앞의 논문 참조.

40) 대표적인 사례로는 야복 도상에 관모를 더한 특이한 시각적 기획을 도모한 강세황 70세 자화상의 사례가 있다. 이 작품을 강세황의 개인사 위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재독하고자 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이경화, 「관모를 쓴 야인: 강세황의 70세 자화상과

텍스트가 시각 이미지에 기대어 출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상과의 조응을 부러 거부하는 ‘어긋난’ 굴절의 표현 방식⁴¹⁾이 있기도 했다. 이미지, 시각 자료를 활용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일부러 에둘러 가거나 배반하기도 하는 식의 입체적 자기표현 글쓰기를 구상하는 데에 초상화찬이 영감을 주는 이유이다. 때로는 가지 않은 길, 갖지 못한 것들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의 뒷면을 뒤집어 후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초상화찬은 초상화를 충실히 설명·부연한다기보다는, 초상화의 시각 정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초상 주인공의 생각과 지향-한 작가 개인의 자의식이거나, 때로는 당대 사대부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문화적 자의식-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초상화찬은 초상화의 시각 정보만으로 다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즉 초상화가 초상 주인공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초상 주인공은 자기 초상에서 무엇을 읽어냈고 또 자기 초상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것이다.⁴²⁾ 결국 초상화

자기인식의 표현, 『미술사와 시각문화』 20,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7이 있다(이경화(2017), 위의 논문, 97쪽: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의미하는 도상과 내면세계를 묘사한 찬문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교한 고안으로 이해된다.”).

41) 상당수의 초상 자찬들은 초상화의 시각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송시열 자찬의 경우처럼 ‘마르지 않은’ 자신의 외모를 초상화찬에서는 ‘마른’ 것으로 버찌놓기도 하고, 관복본 초상을 눈앞에 두고서 자신이 실은 관복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인풍의 인물임을 주장하는 의외의 서술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김기완(2013), 앞의 책, 323~329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재서술함). 丁範祖(1723~1801)의 초상 자찬 사례(정범조, 『海左集』, 권39 「贊」, 〈海左翁畫像自贊〉)에서는 글의 직접적인 창작 동기가 된 초상화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 놓고, 작가 자신의 본연적인 자아 탐색 쪽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정범조 류의 초상 자찬은 텍스트가 이미지에 이끌려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2) 자기 초상화가 사대부 자신에게 유가적 자기반성을 위한 수양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는 것(강관식, 앞의 논문 참조)은, 현전하는 전통 초상화의 회화 이미지 만으로는 알 수 없고 초상화찬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지점이다.

자찬 속에 담긴 ‘나’는 ‘초상화에 그려진 그대로의 나’라기보다는, ‘내가 초상화라는 시각 정보에서 읽어내고, 또 타인들에게 현시하고 싶어하는 형태의 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기 토론 모형에서 보였던 조관빈 <화상자찬> 사례의 경우,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재상의 겉모습을 헤집고 자연인에 걸맞는 처사형 외모와 내면을 굳이 발견해내려는 언술이 보인다. 이러한 서술적 지향은 노론계 고위관료로서 치열한 정쟁 속에서 평생을 보낸 조관빈의 일생⁴³⁾과 모종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렇듯 고위관료였던 문인이 관복을 입은 모습의 자기 초상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을 확연한 은자로 형상화하고자 시도하는 내용의 초상 자찬은 조선후기에 하나의 유형적 흐름을 이루고 있었기에⁴⁴⁾, 개인을 넘어선 관료 문인 집단 전반이 공유했던 자아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초상화찬의 세계에서는 이상적인 인간형이나 자아상에 대한 당대인들의 기대감이 선행한 결과, 초상화 속 주인공의 외모나 복식 같은 화면 내 요소들이 반드시 초상화찬의 내용과 일치 내지 상응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초상 자찬의 경우 옛 사대부들이 선호했던 자아 이미지의 윤곽이 실제 초상화를 압도하곤 했다. 그렇기에 초상 자찬 속의 몇몇 수사(修辭)는 실제 초상화의 도상과 부합한다기보다는 초상화 이미지가 초상 주인공과 당대의 초상 관람자들, 더 나아가 초상화찬의 독자들에게 독해되었던 문화적 코드를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다.⁴⁵⁾

서술자의 자기표현 의도와 그 저변에 자리한 사회문화적 지향이 개입된 결과, 이미지-텍스트 간 관계가 조응될 뿐 아니라 때로 배치(背馳)되기도 하는 초상 자찬의 일면은 현대의 자기표현 글쓰기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나’의 여러 모습 중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측면을 선별·조직하는

43) 조관빈의 정치적 부침에 관해서는 심경호, 앞의 책, 509쪽 참조.

44) 김기완(2009), 앞의 논문, 66~71쪽 ‘야인을 지향하는 관료상’ 항목 참조.

45) 김기완(2013), 앞의 책, 327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서술함.

방식은 Social Network Service상의 일상 사진 업로드 및 관련 글쓰기와도 맞닿아 있다. 초상화찬 텍스트를 접한 글쓰기 학습자들에게 사진, 이미지 등을 활용⁴⁶⁾하거나 역이용⁴⁷⁾ 자기표현 글쓰기 과제를 내주고, 그러한 글쓰기의 저변에 자리한 개인과 사회의 욕망에 관해 다시 토론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전에서 영감을 얻은 자기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는 이러한 글쓰기 교육 자료로 활용할 만한 초상 자찬 사례와 각 작품의 내용적 특성에 따른 지도 방향⁴⁸⁾을 몇 가지 약속해 본다.

① 타인을 닮고 싶은 나: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자제소조自題小照) 우(又) 재제주시(在濟洲時)>

覃溪云嗜古經

담계(覃溪: 옹방강)께선 “고경(古經)을 즐긴다” 하셨고

芸臺云不肯人云亦云 운대(雲臺, 阮元)께선 “남의 말 따라 말하지 않겠네” 하셨으니

46) 오늘날 미국 대학의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이미지(만화 혹은 그림)의 삽입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은, 고연희(2012), 앞의 논문, 57쪽 참조.

47)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 자신에게 없는 것들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역이용’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초상 자찬 사례들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후의 각주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48) 이하 내용에서의 작품 선별과 지도 방향 관련 서술은, 필자가 본 논문의 초고를 처음 기획 주제 발표로서 발표했던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제118차 정기학술대회(온라인 ZOOM 개최 /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려대학교 한류융복합연구소 공동 개최 / 2021년 4월 3일 / 학술대회 기획 주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전문학 연구와 교육> - ‘문학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때의 발표 후 청중 질의 내용에서 크게 도움을 얻어 반영, 추가한 것이다. 청중 질의시 한길연 선생님께서는 존경하는 인물의 외양과 복식을 본인의 초상 이미지 및 관련 텍스트와 결합시켜 표현하는 초상화찬의 서술 방식이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됨을 일깨워 주셨다. 또한 이날 판복본 초상에 부친 초상 자찬에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위주로 보여주는 이종성의 면모가 현대 SNS상의 요구와 유사함을 짚어주신 박경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당시에 이 논문의 초고를 토론해주셔서 여러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해주신 주재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兩公之言 / 盡吾平生 두 공의 말씀이 / 내 평생을 다한 것인데
 胡爲乎海天一笠 어찌하여 바다 하늘가 샷샷 쓴 한 이
 忽似元祐罪人 문득 원우(元祐) 연간 죄인(蘇軾)과 흡사한지.⁴⁹⁾

②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유언호(兪彦鎬, 1730~1796), <제견본소상(題絹本小像)>(제2)

그 옷을 보면 곧 오사모에 조금(鵬錦), 황금(黃金) 보정(寶釘)이니,
 그 의젓함이 늙은 공경(公卿)의 존귀함이네.
 그 용모를 보면 키는 평상만큼도 못 되고 파리어서 옷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그 쓸쓸함이 포의(布衣)의 곤궁함이네.
 사물이 갑작스레 온 것인가, 시절의 우연한 만남인가?
 그 한 토막 마른 나무 같은 마음은 오직 아는 사람만 알리니,
 일구일학(一丘一壑) 속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⁵⁰⁾

③ 타인에게 규정될 수 없는 나:

정범조(丁範祖, 1723~1801), <해좌옹화상자찬(海左翁畫像自贊)>

見我者	나를 보는 자들도
或不知我之爲何如人也	혹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도 하는데
見似我者之於我也	나와 닮은 것을 보는 자들은 나에게 대하여
無得焉爾矣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誠無得焉爾矣	진정 아무것도 얻지 못할진대
彼踈眉明目	저 성긴 눈썹, 밝은 눈에
癯而白者	여위고 창백한 이는
徙幻而已爾矣	환영을 옮겨놓았을 따름. ⁵¹⁾

49) 김정희, 『阮堂全集』, 권6 「題跋」, <<自題小照>> 又在濟洲時. 『阮堂全集』에서 이 작품의 바로 앞에 <自題小照>라는 제목의 다른 작품이 배치되어 있다.

50) 유언호, 『燕石』, 冊3 「題跋」, <題絹本小像> 제 2, “觀其服, 則烏紗鵬錦黃金寶釘,

위에서 “① 타인을 닮고 싶은 나”의 예시로 선택된 김정희는 가깝게 지낸 화가인 허련(許鍊, 1809~1892)이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을 그리는 것을 인가했으며, 그러한 초상의 특수한 복식 표상에 걸맞게 “해천일립(海天一笠)”의 자아상을 문면에 표방한 위 초상 자찬을 남긴 인물이다. 〈완당선생해천일립상〉의 도상은 소동파의 해남도(海南島) 유배 시기 모습을 묘사한 동파입극상(東坡笠履像)에 연원을 두며, 김정희의 동파입극상에 대한 관심과 애호는 송소열(崇蘇熱)이 남달랐던 동시대 청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의 문예취향 공유 속에서 더욱 돈독해진 것이다. 김정희는 위 초상 자찬 속에서 어찌다가 “해천일립” 차림의 초상 속 자신이 유배지의 소동파와 “문득 닮게[忽似]” 되었는지를 짐짓 되묻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와 반문의 어조를 가장한 데 가까우며 기실 초상 제작시 입극(笠履) 의장의 선택부터가 애당초 동파입극상과의 겹쳐짐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고안이다.

제 1구에서부터 옹방강과 완원(阮元)처럼 자신이 존모하고 교유했던 당대 청 문사들의 말로 포문을 연 김정희의 위 작품은, 초상의 이미지와 찬문 공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골조와 세목을 채우면서 그로부터 자아상 재구의 동력을 얻은 초상 자찬의 대표격이다. 모방과 숭모, 기호와 취향이 때로 한 인간을 설명하는 지름길이 되는 현상은 오늘날의 대학생인 글쓰기 학습자들의 일상 및 경험과도 밀착되어 있다.⁵²⁾ 강의자는 위 김정희의 초상 자찬을 단초 삼아 학생들이 “무엇을/누구를 왜 좋아하는지” 이미지(그

儼然卿老之尊也。觀其容，則大不及楮，羸不勝衣，蕭然布衣之窮也。物之儻來歟，時之偶逢歟。若其一段槁木之心，惟知者知之，盍歸來兮一丘一壑之中。”

51) 정범조, 『海左集』, 권39 「贊」, 〈海左翁畫像自贊〉.

52) 소동파와 옹방강에 열광하며 그림과 초상 포함 그들과 관련된 것들을 지나치리만큼 수집했던 申緯와 19세기 조선의 정황으로부터,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대형 사진을 방에 걸어놓고 환호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매니아적 문화를 떠올리는 발상은, 박철상, 『서재에 살다』, 문학동네, 2014, 184·196~197쪽 참조.

림, 사진 등)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유도하고, 다른 대상과 결합시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미지나 텍스트로 구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이 닮고 싶거나 좋아하는 타인이 반드시 각종 현대 미디어와 대중매체에서 접하게 되는 가수, 연예인, 배우, 스포츠 스타, 게이머나 유튜버일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대상을 글쓰기 학습자가 지난 역사와 텍스트의 숲에서 만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초상 자찬의 전통에서도 조선에서 송자(宋子)로 칭해지곤 했던 송시열(宋時烈)이 송(宋) 주희(朱熹, 1130~1200 / 일명 朱子로 존칭됨)를 본받는 뜻을 담아, 주희가 그러했듯 자신의 초상 자찬에 ‘서화상자경(書畫像自警)’이라는 제목을 동일하게 붙인 선례가 있었다. 주희와 송시열 및 여타 조선 문인들이 남긴 〈서화상자경(書畫像自警)〉 표제작들의 사례⁵³⁾를 강의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글의 제목이나 내용, 형식을 본뜨거나 적절히 인용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에서 “②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예시로 든 유언호 초상 자찬의 내용은, 본 장의 앞 절에서 보인 조관빈(晁觀彬)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유언호는 위 작품에서 눈앞의 관복본 초상화를 응시하면서도 화려한 관복에 가려지지 않는 왜소한 포의(布衣)의 용모를 분리해내면서 자신의 귀결처로 아인의 메마른 심사에 걸맞는 일구일학(一丘一壑)을 지정해 둔다. 유언호는 고위 관료로서의 사회적 성공을 당대와 후대의 초상 관람자들에게 한눈에 현시할 수 있는 관복 차림의 초상 제작을 포기하지 못한 대신, 관리의 복장과 평행선을 이루는 아인 지향 사대부 의식을 초상 자찬으로 대리 충족하면서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던 많은 조선후기 사대부들 중 한 명이었다.⁵⁴⁾ 이런 부류의 초상 자찬들은 관복 차림의 초상은 가장(假裝)이고 그에

53) 〈書畫像自警〉 표제작의 조선 내 창작 전통과 변주에 관해서는, 김기완(2009), 앞의 논문, 71~79쪽 참조. 송 주희의 초상 관련 텍스트가 특정 당파 내에서 의식되고 인용되는 양상은, 김기완(2012), 앞의 논문 참조.

부친 자찬 쪽이 본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찬이 표방하는 은일(隱逸) 처사(處士)로서의 자의식 역시 동양의 문예전통 내에서 너무도 오랜 연원이 있는 만큼, 작가의 속내는 결국 초상 이미지를 예들러 2차 방어선인 자찬 텍스트 너머로 빗겨간다.

복식을 주된 키워드로 하는 초상 이미지의 표면과 이면이 서로 엇나가면서 여러 층에 걸친 불협화음을 이루는 초상과 초상 자찬의 관계는, 글쓰기 교과목의 학습자로 하여금 현대의 각종 온라인 매체를 수놓은 일상 사진과 각종 웹상 글쓰기, 댓글쓰기 행위에 대해 재성찰해 보도록 유도한다. 사회의 요구와 대중의 욕망을 민감하게 반영한 SNS상의 일상 사진의 전시, 그에 이어진 웹상의 각종 글과 댓글을 포함한 온라인 글쓰기의 이면에는, 과거에 초상 자찬의 작가가 초상과 자찬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인간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글쓰기 강의에서 학습자에게 환기시킨다면, 태생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표현 글쓰기가 그러한 시선과 규율의 제약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표현할 있는 ‘나’,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글로 쓰여질/보여질 수 없는 ‘나’의 문제와 같은 서술자의 다양한 층위와 존재를 학생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앞에서 “③ 타인에게 규정될 수 없는 나(내지는 그러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의 사례로 예시한 정범조 자찬의 경우에는 초상 이미지와 초상 주인공(초상 자찬의 작가) 간의 관계가 표면상 가장 험악한 축에 속한다. 이것은 외형적 이미지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려는 유가(儒家) 문화에서의 초상화관, 초상을 그린 1차적 표현의 주체가 문인 자신이 아닌 화가라는 정황, 초상을 매개로 한 존재에 대한 진정한 ‘알아줌’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자의식적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듯하다. 자찬이 초상이라는 매체의 불완전성에 대해 심각한 보충의 형식을 취하면

54) 김기완(2013), 앞의 책, 328~329쪽 참조.

서 시종일관 초상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정범조의 이 자찬 역시 초상 제작을 계기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표현하는 초상 자찬의 서술 전통 내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글쓰기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보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와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 ‘나’를 실제적으로 그려나가는 [實寫] 오늘날의 일반적인 자서전과는 달리,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여 ‘나’를 하나씩 깎아나가듯이 음각적으로 허사(虛寫)해낸 초상 자찬 작품들⁵⁵⁾을 통해 자기 표현 글쓰기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착안의 가능성을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초상과 찬문의 긴장-대치 관계에서 동력을 얻은 정범조의 위 자찬과는 다소 양상이 다르지만, 부정의 중첩과 연속을 통해 허사(虛寫)를 시도한 이런 류의 초상 자찬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타인에게 규정되거나 포착될 수 없는, 세상의 기준을 쉽게 따르지 않는 특별한 나”를 그리려는 욕구와 연관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초상 자찬 분류 항목과 지도 방향(① 타인을 닮고 싶은 나 / ②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 ③ 타인에게 규정될 수 없는 나)은, 초상 자찬과 동양 자전문학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자이상 유형 분류⁵⁶⁾를 기본적으로 참조하면서 필자가 글쓰기 강의와 초상

55) 김기완(2009), 앞의 논문, 107~112쪽 작품 사례들과 분석 참조. 尹東暹(1710~1795), 黃玼(1855~1910), 유한준 등의 초상 자찬이 이에 속하며, ‘無·不·非·不能’ 등의 부정어를 구절마다 반복하면서 연속으로 쓴 것이 표현상 특기할 점이다.

56) 임준철의 화상자찬류 문학 연구에서 자아 형상화 방식은 “보잘것없는 나”, “낮선 나”, “남이 모르는 나” 등의 항목명으로 분류되어 분석되었고(임준철, 『전형과 변주』, 글항아리, 2013, 128~147쪽 참조), 가와이 코오조오의 중국 자전문학 연구에서는 “남들과 다른 나 세상에서 배제된 나/남들과 질적으로 다른 나/남들보다 뛰어난 나/못 사람보다 못한 나”, “이러하고 싶은 나” 등의 분류 항목을 취하였다(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2002), 앞의 책 참조).

자찬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해 본 것이다. ①~③ 모두 ‘타인’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예시한 초상 자찬의 내용적 실상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옛 초상 자찬이든 오늘날의 자기표현 글쓰기이든 결국은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표면상 타인의 이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타인’ 내지 ‘세상’과의 관계와 절연된 채 독존(獨存)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있다. 일찍이 가와이 코오조오는 개성의 표방이란 것이 기실은 현대인의 착각에 가까우며, 자기가 남들과 다름을 주장하면서도 “시대와 문화가 예비한 틀(전형 내지는 유형) 속에 스스로를 포섭”시키는 양상은 중국의 옛 자전문학뿐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⁵⁷⁾ 이는 오늘날의 글쓰기 교육에서 초상 자찬을 돌아보는 작업이 먼지 속의 낱은 양식을 일견(一見)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성찰의 계기와 자기표현 방식의 탐색에 있어 여전히 유효한 현재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이다.

4. 나가며

본고를 통하여 초상화찬 및 초상 자찬이 대학 강의자료로서 가지는 가능성과 효용에 관해 필자의 실제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보았다. 요컨대 초상화찬은 고전문학 전공 강의, 대학 글쓰기와 같은 교양 강의 등 각 교과목의 성격에 맞게 활용한다면 새로운 강의 자료 및 토론 교육 자료가 될 만하다. 한국 고전문학 전공 수업에서 초상화찬을 활용한다면, 한 인간을 서술하는 글쓰기 양식이 산문뿐 아니라 운문 형식으로도 정립되고, 때로는 이에 초상 이미지가 동반되기도 했던 전통시대 문예사의 일면을 강의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글쓰기 교과목 등의 대학 교양 수업에서는 초상 자찬

57) 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2002), 위의 책, 301~302쪽 참조.

텍스트로부터 자기표현 글쓰기의 영감 및 이와 관련된 학술적·지식적 기반을 얻을 수 있다. 전통시대 초상화와 같은 옛 그림은 과거의 동아시아 한문문화와 태생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대상임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호기심을 도출할 수 있고, 강사의 전문적인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강의자료⁵⁸⁾로서 그 교육적 효용이 높다. 시각 이미지의 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 제고뿐 아니라, 전통시대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양 차원의 지식 충족이 동시에 가능하며, 본고에서는 그러한 한 사례로서 초상화찬을 조명하였다.

이후에도 초상화찬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 한자·한문 교육에서의 문학과 회화 연계 교육’과 같은 포괄적인 주제 내에서 한층 다양한 강의자료의 발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다루기에 적합한 교수법의 창안을 진행하는 방향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학 강의 현장의 고전문학 교육은 관련되는 최신 학술적 논의들의 추이와 공명하고 상호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다른 한편 고전문학 학계에서의 전통시대 문학과 회화 간 상호 연계적 연구 또한 더욱 다양한 방법과 시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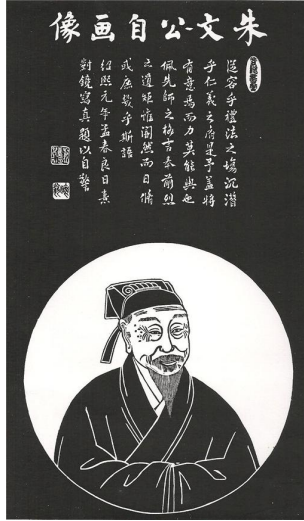
58) 예컨대 동일한 초상화를 마주하면서도 조선시대 문인들이 찬을 통하여 기대하고 읽어나고자 한 것과, 현대의 초상 관람자들이 한결 자유롭게 보고 느끼는 것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기에 초상화찬을 강의에 활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강사의 강의와 설명이 필요하다. 초상화찬은 전통시대 초상화를 바라보는 초상 주인공 본인을 포함한 당대인들의 시각과 의식, 의도를 한결 명확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다.

【부록: 참고도판】

* 본고에서 특히 3.-3) 부분의 강의시 활용 가능한 초상 자료의 사례를 이하에 첨부한다.



許鍊, 〈阮堂先生海天一笠像〉



臺北故宮博物院 소장,
〈朱文公(朱熹)自畫像〉



〈宋時烈 초상〉



〈趙觀彬 초상〉



李命基, 〈俞彦鎬 초상〉

참고문헌

1.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홈페이지 소개 자료:

金正喜, 『阮堂全集』; 兪彦鎬, 『燕石』; 兪漢雋, 『自著』; 李尙迪, 『恩誦堂集』; 丁範祖, 『海左集』; 趙觀彬, 『悔軒集』

2. 논저

가웨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1~319쪽.
강관식, 「조선시대 초상화의 圖像과 心像: 조선 중후기 선비 초상화의 修己의 의미를 통해서 본 再現的 圖像의 實存的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성찰」, 『미술사학』 1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1, 7~55쪽.

고연희, 「시화(詩畫)종합의 전통과 문학교육: 회화이미지 ‘형(形)’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33~62쪽.

_____, 「회화를 통한 고전문학 학습, 그 효과와 의미」,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99~127쪽.

_____,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153쪽.

김기완,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92쪽.

_____, 「노론의 학통적 맥락에서 본 송시열 초상화찬(贊)」,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93~332쪽.

_____, 「초상화찬, 옛 문인들의 문학적 초상」,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대학사, 2013, 321~335쪽.

_____, 「20세기 초 망명 문인의 시각적 자기 표상: 초상화, 초상사진, 초상 자찬」, 『한국한문학연구』 69, 한국한문학회, 2018, 257~290쪽.

_____, 「초상화찬의 자기 타자화와 관용구 활용」,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91~116쪽.

_____, 「國難期 遺民의 초상: 19세기 후반 · 20세기초 亡國 · 망명 체험과 초상찬의 轉變」, 『한국고전연구』 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33~75쪽.

_____, 「추사 일파의 초상 題贊 운문 연구」, 『열상고전연구』 72, 열상고전연구회, 2020, 247~289쪽.

_____, 「추사 일파의 초상 제찬(題贊) 운문 연구 (2): 외모기술과 초상화관(肖

- 像畫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35~74쪽.
- 김동준, 「이불과 베개에 새긴 잠언-침명(枕銘)과 금명(衾銘)」, 『문헌과 해석』 35, 태학사, 2006, 11~26쪽.
- 김울림, 「용방강의 금석고증학과 소동파상」, 『미술사논단』 18, 한국미술연구소, 2004, 89~113쪽.
- _____, 「18·19세기 동아시아의 소동파상 연구: 청조 고증학과 관련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414쪽.
- 김종철, 『한문 운문문체의 이해와 분석』, 청문각, 2003, 1~251쪽.
- 김현권, 「추사 김정희 일파의 諸賢畫像 수용과 제작」, 『강좌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1045~1076쪽.
- 김현주, 「고전문학 교육에서 예술 교육의 의의와 방향 모색」,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5~26쪽.
- 毛文芳, 「禮物: 金正喜與燕京文友의 畫像交誼及相涉問題」, 『한문학논집』 42, 근역한문학회, 2015, 9~40쪽.
- 박진성, 「사전문학 용어의 정립을 위한 시고」,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75~106쪽.
- 박철상, 『서재에 살다』, 문학동네, 2014, 1~318쪽.
- 신대현, 『진영과 찬문: 참 아닌 참의 세계』, 혜안, 2006, 1~313쪽.
- 심경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1~663쪽.
- _____, 「조선의 화상과 찬에 관한 窺見」,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71~109쪽.
- 양승민, 「매월당 김시습 초상화의 개모(改模) 과정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416~455쪽.
- 유광수 · 임진영 · 김기란 · 주형예 · 강현조, 『비판적 읽기와 소통의 글쓰기』, 박이정, 2013, 1~241쪽.
- 이경화, 「관도를 쓴 야인: 강세황의 70세 자화상과 자기인식의 표현」, 『미술사와 시각문화』 20,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7, 68~99쪽.
- 이송희, 「그림과 시를 활용한 자화상쓰기: 전남대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제96차 정기 학술대회(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문학) 발표자료집, 2021년 6월 5일(학회 개최 일자), 158~173쪽.
- 이혜순 편, 『비교문학 Ⅱ: 논문선』, 중앙출판, 1980, 1~281쪽.

- 이혜순, 『비교문학 I: 이론과 방법』, 중앙출판, 1981, 1~367쪽.
- 임준철, 「畫像自贊類 문학의 존재양상과 자아형상화 방식의 특징」, 『고전문학 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259~300쪽. (임준철, 『전형과 변주』, 글항아리, 2013에 재수록)
- _____, 「한국 화상자찬의 전형과 변주」, 『전형과 변주』, 글항아리, 2013, 159~200쪽.
-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열화당, 1983, 1~501쪽.
- _____, 「중국 초상화의 유입 및 한국적 변용」·「명·청대 초상화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초상화의 성격」, 『초상화 연구』, 문예출판사, 2007.
- 진준현, 「선비의 초상화 (I)」, 『자연과 문명의 조화(구 대한토목학회지)』 제55권 제9호, 대한토목학회, 2007, 79~83쪽.
- _____, 「선비의 초상화 (II)」, 『자연과 문명의 조화(구 대한토목학회지)』 제55권 제11호, 대한토목학회, 2007, 103~107쪽.
- _____, 「19-20세기 사대부 초상화」,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행, 『다시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조선시대 초상화 학술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하승현 옮김·미호 그림, 『잠, 마음에 놓는 침: 고전작품선집』, 한국고전번역원, 2015, 1~287쪽.
- 최재목, 「근대 한국·일본의 『陽明先生肖像』에 나타난 사상 전략: 최남선의 『少年』誌와 東敬治의 『陽明學』誌를 중심으로」, 『양명학』 21, 한국양명학회, 2008, 233~260쪽.
- 황혜진, 「그림 보고 글쓰기」의 전통과 교육적 창신: <마상청앵도>의 그림과 제화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25~150쪽.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utilizing portrait panegyrics
in university education
: Focusing on the jachan(self-praise) of portrait

Kim, Ki-wan*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portrait panegyrics in various fields of Korean literature and art history to share and develop academic interest in the combination between text and image and how it can be incorporated into various university lectures. The values of portrait panegyrics as lecture materials are to increase the educational use of the traditional verse in Chinese characters. In addition, this may improve the cultural diversity of lectures through the revival of east Asian Chinese literature and link the self-expression of students who study literature at university. Finally, this paper presents examples of discussion-type teaching models that can be used in major and liberal arts lectures, which can not only cultivate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search senses, but in addition obtain a modern understanding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the skill of self-expression.

Key Words portrait, portrait panegyrics, jachan(self-praise), self-expression writing, literature and painting

논문투고일 : 2021.07.26.
심사완료일 : 2021.08.09.
게재확정일 : 2021.08.11.

* Lecturer, Yonsei University